

LG 화학 (051910)

황규원 02-3770-5607

Forecasts and valuations (K-IFRS 연결) (단위: 억원, 배, %)

결산 (12월)	2021A	2022A	2023F
매출액	425,993	518,649	563,912
영업이익	50,264	29,957	25,910
지배순이익	39,539	21,955	29,390
PER	12.1	24.0	15.5
PBR	2.2	1.5	1.1
EV/EBITDA	7.4	9.1	7.9
ROE	18.5	6.9	7.0

자료: 유안타증권

- ▶ 2023년 4분기 예상 영업이익 5,000억원(전분기 8,600억원) 수준으로 감익. 석화 소폭 흑자, 첨단소재 bep(퇴직금 등 일회성 비용), 배터리 5,000억원
- ▶ 배터리 양극재 판매 여건 개선 기대감 높아짐. LG에너지솔루션에서 LG화학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% 초반인데, 점차 40%까지 높일 계획임
- ▶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, LG화학이 82.8%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성이 생김(LG화학이 해외 배터리 최저한세 부담을 피하기 위함)

LG 에너지솔루션 (373220)

이안나 02-3770-5599

Forecasts and valuations (K-IFRS 연결) (단위: 억원, 배, %)

결산 (12월)	2021A	2022A	2023F
매출액	178,519	255,986	343,120
영업이익	7,685	12,137	23,472
지배순이익	7,925	7,672	16,785
PER	-	138.5	59.7
PBR	-	5.7	4.8
EV/EBITDA	-	36.4	28.6
ROE	10.7	5.7	8.5

자료: 유안타증권

- ▶ 2024년 EV 수요 둔화 우려로 2공장 가동률은 유동적으로 운영될 것. 미국 내 매출비중 27% 이상을 차지하는 Bolt (EV, EUV) 생산 중단으로 Q 감소 우려가 있기 때문
- ▶ GM뿐 아니라 Ford Mustang Mach-E도 모든 Standard-Range에 LFP 적용을 선언하면서, 유럽에 이어 미국 시장까지 수요 감소 영향이 있을 것
- ▶ 다만, 2025년 사이버트릭 등 픽업 트럭 출시 관련 셀 기업들의 '46시리즈 수주 모멘텀'이 될 것. 2024년 하반기 오창 공장에서 4680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이버트릭향 가능성이 높음

농심 (004370)

권명준 02-3770-5587

Forecasts and valuations (K-IFRS 연결) (단위: 십억원, 배, %)

결산 (12월)	2020A	2021A	2022A
매출액	2,640	2,663	3,129
영업이익	160	106	112
지배순이익	149	100	116
PER	12.2	19.9	18.1
PBR	0.9	0.9	0.9
EV/EBITDA	4.6	7.0	6.5
ROE	7.5	4.4	5.2

자료: 유안타증권

- ▶ 국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Cash Cow를 확보하고 있음. 신라면 시리즈는 인기가 지속되고 있으며, 신제품(라면&스낵)을 출시함
- ▶ 미국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북미 유통처 적시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함. 미국 라면 공장(1, 2공장) 모두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, 향후 3공장을 통해 영역 확대가 기대됨

•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. •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•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•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•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,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 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,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